스위스 부띠끄 타운.

스토리를 가진 스위스의 매력적인 도시와 마을들

로컬들이 자라난 도시와 마을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 만나다
취리히 기업가가 소개하는 도시의 아트한 스팟들
자전거 집배원이 선사하는 베른의 숨겨진 보물들
스위스로 가는 올바른 길,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

«스위스 어반 필링(Swiss urban feeling). 부띠끄 타운(Boutique Towns)»은 스위스정부관광청이 소개하는 새로운 도시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진부한 관광지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여행자들이 전혀 색다른 관점에서 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여행하는 동안만큼은 짧게라도 "스위스의 일부"가 되어 여행지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행자들은 로컬의 눈으로 도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의 질, 스위스 라이프스타일, 밀도 높은 체험 거리가 '스위스 부띠끄 타운' 캠페인의 주요 아이템이다. 이 캠페인은 단체 관광 스팟과 대조되는 시크릿 스팟에 촛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이를 통해 SNS 문화로 보다 특별한 체험과 포토 스팟을 찾는 여행자들의 디테일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지 휴가(City breaks)는 일상에서의 짧은 탈출을 의미한다. 스위스 부띠끄 타운은 도심지 휴가에 완벽한 장소다. 스위스의 도시와 마을은 매우 컴팩트한 공간에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밀집되어 있다. 여행자들의 로컬의 눈으로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잊지 못할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1. 아트 & 시티(Art & the City), 취리히(Zürich)
레아 에글리(Rea Eggli)와 함께 예술의 도시, 취리히를 둘러보자. 취리히는 밤낮으로 수 없는 이벤트가 펼쳐지고, 다양한 박물관이 모여 있으며, 스위스에서 가장 생기있는 나이트라이프를 자랑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취리히의 공원이나, 호숫가, 도심 속 어디든 예술이 있다. 레아 에글리는 그 중심에 있다. 그녀가 최근 시작한 스타트 업 프로젝트, #letsmuseeum 을 통해 팝 컬쳐 매니아들을 위한 속도감있게 진행되는 투어를 운영한다. 이 투어를 통해 팝 컬쳐 팬들과 스토리텔러들이 소개하는 박물관과 도시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방점이 엔터테인먼트에 찍힌 투어라 더 흥미롭다. 레아 에글리는 자신이 아끼는 취리히의 아트한 스팟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다다이즘(Dadaism)이 태어난 곳, 캬바레 볼테르(Cabaret Voltaire)가 그 첫번째다. 취리히 구시가지, 니더도르프(Niederdorf)에 있는 슈피겔가쎄(Spiegelgasse) 1 번지에 위치한 캬바레 볼테르는 1916 년 다다이즘이 태동한 곳이다. 제 1 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 당시, 화가, 음악가, 무용가, 작가들은 캬바레 볼테르를 도피처로 삼았다. 이들은 다다 운동을 "미쳐버린 세상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예술의 컨셉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국제적인 예술 혁명이 이 곳에서 시작된 것이다.

"다다는 시간을 초월하고, 도발적이고, 감흥을 선사 하죠." 레아 에글리가 말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100 년이 지났다. 캬바레 볼테르는 오늘날까지도 현대 다다 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문화 사업가, 레아 에글리에게 중요한 장소임에 틀리 없다. 그녀는 캬바레 볼테르의 지원 협회에 속해 있다. 2016 년 다다 100 주년의 해에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했던 그다. 레아 에글리에게 오늘의 다다는 그 의미나 그 유머에 있어 한 점도 잃은 것이 없다.

“다다는 언제나 나를 미소짓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죠.”라고 그녀는 덧붙인다.

사실 취리히는 공공 예술의 도시다. 번잡한 반호프슈트라쎄(Bahnhofstrasse)에는 막스 빌(Max Bill)의 파빌리옹(Pavillon) 조각이 무심하게 자리해 있다.

베른(Bern) 출신의 레아 에글리는 취리히에 20 년 정도 살았다. 이 시간 동안 문화계에서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와 스위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베마카이트(wemakeit)”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베마카이트는 그녀가 공동으로 설립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녀가 최근에 시작한 문화 스타트 업, #letsmuseeum 은 팝 컬쳐 매니아들에게 속도감있는 투어를 선보인다.

1,300 점의 예술을 만나볼 수 있다. 기업가로서, 레아 에글리는 많은 시간을 도시 안에서 이동하며 보낸다. 도심의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셀 수 없는 예술 작품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녀다. 취리히에는 공공 장소에 자리한 예술품이 1,300 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모두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리에 놓여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만 찾을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Y 라는 작품의 그네다. 시슬레이 샤파(Sislej Xhafa)의 작품이다.

“취리히의 공공 예술은 도심에서도 가장 예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자리해 있죠.”라고 설명한다.

방랑벽을 위한 효험 좋은 약이 있다.
레아 에글리가 가장 아끼는 취리히의 아트 스팟 중 하나가 바로 리트베르그 박물관이다. 리트베르그 박물관(Rietberg Museum)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 취리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꼽히기도 하는 정원이 아름다운 박물관이다. 그녀는 아시아에서 2 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때가 그리울 때면 종종 이 박물관을 찾는다.

셀 수 없는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취리히의 리트베르그 박물관은 스위스에서 비유럽권 문화를 다루는 유일한 미술관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작품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하에 마련된 전시 보관실에 특히 감명을 받는 그녀다. 이 곳에서 몇 시간이고 경이로운 감상에 젖어 있곤 한다. 얼마나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지 언제나 놀랍다.

“이 곳에 하룻밤 갇혀서 이 많은 유물을 다 세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수줍게 웃는 그녀다.

2. 자전거 집배원이 선사하는 베른(Bern)의 숨겨진 보물들
자전거를 타고 베른의 보물찾기를 떠나보면 어떨까? 이보 마지스트레띠(Ivo Magistretti)는 자전거를 타고 베른을 질주하는 것보다 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베른이 가진 도시의

다채로운 구역들은 저마다의 매력을 뿜어낸다. 특히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다. 다른 곳에서는 흔치 않은 풍경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의 구역에는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는 곳이 하나씩은 있는데, 관광객들은 물론 로컬들도 만남의 장소로 애정하는 곳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구시가지를 지나 아레(Aare) 강을 향한다. 이것이 이보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운율을 뜻하는 라임(rhymes)을 잘해 꿈의 직장을 얻은 그는 자전거 배달원으로 일한다. 그의 전 경력에 있어 가장 행복하다고 활짝 웃는 그다. 베른 태생의 이보는 과거 여러 직종의 일을 했지만,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키며 일할 때가 제일 좋았다고 회상한다. 그가 꿈의 직업, 자전거 뱁달 일을 수행하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바로 랩 비디오다. 자전거를 타고 베른 곳곳을 돌아다니는 영상에 직접 만든 랩을 더해, 온라인에 포스팅한다. 그 비디오는 크게 주목을 받았다.
https://www.facebook.com/bernswitzerland/videos/ivo-magistretti-velokurierrap/2035085273377585/

첫 번째 행선지는 초컬릿 케이크다.
이른 아침, 새벽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을 무렵이다. 이보는 로라이네(Lorraine) 다리를 건너 랭가쎄(Länggasse)로 향한다. 그의 목적지는 카페 압펠골드(Café Apfelgold)다. 이보가 제일 좋아하는 초컬릿 케이크를 만든다. 이보는 마르칠리(Marzili) 구역으로 배달할 사과 주스 한 박스를 들어 올린다. 베른을 손바닥처럼 아는만큼 재빠른 그이기 때문에 수다를 떨 시간이 조금 있다.

"베른의 여러 구역에서 사람들은 잠깐 멈추고 시간을 들여 대화를 나누죠. 이 도시를 대단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 중 하나에요."라고 그는 말한다.

이 자전거 배달원은 친근하고 다정한 베른 곳곳의 분위기가 감사할 따름이다.

각 구역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보는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한다. 바로 큐라덴(Q-Laden)에서다. 자전거 배달 서비스 사무실 바로 옆에 자리한 자그마한 유기농 숍이다. 로라이네 구역에 앉아 있는 것이 이보의 첫 일과일 때가 많다. 여기에서도 그는 주인장과 친하다. 시간을 들여 담소를 나눈다. "그게 바로 당신을 위한 베른이죠(That's Bern for you)!" 그가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다. 베른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의 눈동자는 반짝인다.

"지름길과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길이 수없이 많죠. 저도 아직 다 찾아내지 못했다니까요." 그는 멋쩍게 웃는다.

여름이면 모두가 아레 강에 몸을 담군다.

이보는 사과 주스 박스를 잘 정리해 그의 대형 백팩에 잘 집어 넣고, 키르헨펠트(Kirchenfeld) 구역 근처에 있는 몽비쥬(Monbijou) 다리 방향으로 질주한다. 가는 길에 그는 깨끗한 옥빛 아레 강물과 베른의 뒷동산, 구어텐(Gurten) 풍경을 즐긴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골목을 따라 내려가

가슈케셀(Gaskessel) 문화 센터를 지나 마르칠리(Marzili) 구역에 있는 아레강둑에 다다른다. 이 곳은 모든 게 강에 대한 것뿐이다.

이보는 지금 당장 강물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 레스토랑 마르처(Restaurant Marzer)로 향하는 배달이 바쁘기 때문이다. 조용한 길에 자리해 국회의사당 뷰가 한 눈에 들어오는 레스토랑이다. 예전에 셰프이기도 했던 이보가 잠시 들러 이 아늑한 곳에서 간단한 한끼를 즐기기 좋아하는 곳이다.

“자전거를 타고 베른을 돌아다닐 때 자유가 느껴져요.” 이보는 말한다.

아레 강을 따라 미소도 따라 흐른다.
이보는 다시 속도를 내 마테(Matte) 구역을 지나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팝업 바, 트리브호우츠(Trybhouz)를 향한다. 베른의 모든 구역처럼, 이 곳의 모토 역시 “서두를 필요 없어요(Nume-nid-gsprängt).”다. 마테 구역은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며 아레 강에 시원하게 몸을 담구기 완벽한 곳이다.

3. 스위스로 가는 올바른 길,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Swiss Travel System)
스위스에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딜 가든지 자유다. 기차, 버스, 유람선 어느 것이든 말이다. 스위스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편리해 진다. 도시와 마을을 빠르고 쉽게 돌아볼 수 있다. 대중 교통은 주변 국가와 스위스 내 도시들, 그리고 도심 내 곳곳을 연결한다. 사람들도 연결해 준다.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옛 풍경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다.

기차는 스위스와 주변 국가를 하루에도 수 차례나 연결해 준다. 게다가 스위스는 유럽에서 대중 교통 네트워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일단 오르고 보자. 그리고 간편하게 스위스를 여행하는거다.

연결되었습니다.
떼제베(TGV), 유로씨티(EuroCity), 인터시티 익스프레스(InterCity Express)가 파리, 함부르그, 비엔나, 밀라노를 포함한 주변 국가 도시들을 스위스와 연결해 준다. 편안하게 기차에 앉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기막힌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준다.

도착하였습니다.
기차로 여행하는 것은 쉽고 편안하다. 원하는 목적지로 바로 데려다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취리히(Zürich)에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 가지 국제 기차편이 하루에도 몇 차례 도착한다. 취리히 기차역은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다. 기차역에 내리면 다양한 여정을 위한 대중 교통편이 바로 코 앞에 자리해 있다.

다음 목적지는?
기차역에서 바로 여행이 시작된다. 어디로 가든 말이다.

기차, 도로, 강. 모두를 이용해 여행할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취리히의 아이콘, 파란 트램은 도시의 상징이다. 하지만 버스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취리히 곳곳을 여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마트(Limmat) 강 보트에 올라 강을 따라 올라 가다가 취리히호른(Zürichhorn)에 있는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을 찾아볼 수 있다.

리버 루트를 따라가는 리마트 보트에 올라, 취리히의 유명한 건물들을 따라가는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이 여정은 새로운 시각으로 취리히를 감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취리히에 사는 로컬이나 관광객이거나 대중 교통보다 더 좋은 도심 투어는 없다. 친숙한 장소를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할 수도 있다. 보트로 한 방향을 여행한 뒤, 돌아올 때는 트램을 타면 좋다. 그리고 버스로 다시 한 번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아도 좋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같더라도 감상하게 되는 풍경은 모두 색다를 것이다.

물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아도 좋다. 역시 색다른 풍경을 선사해줄 것이다.

대중 교통만을 이용해 여정을 만들어 가는 기쁨은 색다르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선사해 주기 때문이다. 여정 중에 발견하게 되는 숨어있는 보석은 탄성을 자아낸다. 폴리반(Polybahn)이 좋은 예다. 1889 년에 지어진 폴리반은 취리히의 중앙에 있는 센트랄(Central)과 취리히 공과대학이 있는 폴리테라쎄(Polyterrasse)를 이어준다.

이 모든 여정을 스위스 트래블 패스 한 장으로 즐길 수 있다.

자료 협조: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